

<사상론과 한설야 문학> 발제문

서 경 석

1. 발표문의 취지

한설야의 문학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정치적 해석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한설야 문학 연구>(서울대, 1992)에서 저는 한설야가 1920년대 후반 신간회나 노동자 협의회를 둘러싸고 이복만, 임화 등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이 대립이 이들의 문학을 분화시키는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 대립을 토착파와 동경파의 갈등으로 평가한다거나 해방 후 김일성과 박헌영의 대립으로 비약시키는 것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혹은 전자를 비전향의 주력으로 후자를 전향자들로 분류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설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오신 김재용 선생의 논문들도 이런 맥락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 방법은 나름의 시대적인, 연구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문학의 관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학의 속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터인데 한설야의 작품에 드러난 미적인 인식론을 분석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이 방법론으로 연구한 논문의 정점은 김재영 선생의 석사학위 논문(<한설야 문학연구>, 연세대, 1990)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리얼리즘문학방법론 말하자면 루카치로 대표되는 창작방법론으로 한설야 문학의 관념적 성격을 분별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념이 앞서서 이런 한설야의 창작방법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내는 데서 논문은 그치고 있습니다. 한설야가 지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관념의 동력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분석이 없습니다.

한편 김윤식 교수의 경우는 이 관념의 정체를 분별해내고는 그것을 '생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임화연구>(문학사상사, 1989)에서 임화와 한설야를 관계를 다루면서 '한설야, 생리적 대결의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모던보이 임화와 촌놈 한설야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생리라는 것은 육체에 깊이 각인된 한설야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한설야 문학의 당파성을 생리적 측면에서 연유하였다고 지적합니다(김윤식,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0, 50면) 이 생리적 성격을 그는 가변적인 개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성격'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을 세파 속에서 굳어진 성격이어서 생리적 수준에서 그러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 생리에 대한 해석이 아직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김남천이 날카롭게 언급한 <풍속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근거를 정치 뿐 아니라 그것이 몸 담고 있는 습속의 세계에서 찾고자 하는 방식은 이글튼이나 머쉬레이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 연구라 해도 되겠습니다. 정치적 담론구성체도 이에 해당되고 종교도 해당되지만 이 지점에서 전통 혹은 우리 민족이 몸담고 있었던 전근대의 이념적 사고와 삶 즉 특정한 유교적 사고도 한설야의 '생리'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카

프문학 연구에서 전통적 토양과 사회주의 문학의 영향 사이의 화학적 반응에 대한 고려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문인들 내부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전통적 사유와 새로운 사조와의 새로운 접합을 본격적으로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에 대해 가장 의식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카프 문인들의 경우, 이런 의식적 부정은 응당 당연한 것으로만 간주되고 새로운 사상의 흡수라는 측면만을 탐색해온 것입니다. 이 결과 카프문인 역시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권 하에서 성장했다는 점 자체가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목은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한설야를 유교적 맥락에서 연결해주는 몇 가지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2. 한설야 소설의 생리와 그 윤리적 속성

한설야소설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시기는 카프 시기, 둘째 시기는 카프 해산 후의 시기, 셋째는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시기의 정치적 메시지는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됨 즉 품성의 문제가 언제나 갈등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작이나 후기작은 겉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만에 빠진 동물에 가까운 포악한 인간(일본인)을 등장시킨 <그릇된 동경>이나 '미제국주의자'=송냥이를 등장시킨 <송냥이>가 대표적입니다. 이기영의 경우처럼 사회악의 원인을 제도의 측면에서 찾기보다는 인간의 품성과 존심(存心)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기작인 <황혼>의 여순이란 인물을 두고 현대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너무도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한설야는 고집스럽게 이 인물을 고수합니다. 인간이 마음이 결국 세계의 바꾸리라고 강조합니다. <지하실의 수기>에서 그는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도 혼자 이 길을 고집스럽게 지하실 암흑 속에서라도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한설야, <지하실의 수기>, 『조선일보』, 1939.7.8). 그의 글에서는 끊임없이 신의를 강조합니다. 성급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경멸합니다. 칼을 맞은 딸이 병원에 누워서까지 울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우는 작은 아들을 땅에 머리만 내놓고 파묻었다(<이녕>)고 쓰고 있습니다. 카프가 해산된 후의 작품 <世路>는 의리와 명분이 사기와 시류에 능욕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화폐는 단지 악이지 화폐경제의 요소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이러한 특징은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고 인간됨의 어떤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긍정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의예지를 강조한 전통적인 사상과 어떤 상동성을 없을까를 고려하게 됩니다.

3. 한설야의 가계(家系)와 유교적 전통

이 지점에서 지적할 점은 한설야의 집안과 사상의학으로 잘 알려진 동무 이제마와의 관계입니다. 한설야의 자전 소설 <탑>에는 이제마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줄고, <한설야 문학의 유교적 배경 연구>, 우리말글, 2007)

이 작품(탑)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제마라는 인물의 등장이다. 이 작품에서 아주 길게 묘사해 놓은 이제마라는 인물이 작가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박진사는 사제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제마(1838-1900)는 조선말기의 경학자이자 『東醫壽世保元』의 저자이다. 특별한 사상적 계보가 없지만 東武 이제마는 芸菴(운암) 韓錫地(1769-1863)의 『明善集』¹⁾을 보고 배워 존경했다. 후에 이제마의 저서들 끝에 芸菴淵源이라 붙인 것은 운암에서 동무 이제마가 나왔다는 의미이다.

한석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이제마에게 영향을 끼친 한석지의 『명선록』에 대해서는 이을호의 선구적인 연구²⁾가 있지만 본격적인 철학적 연구로는 윤종빈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그의 글의 결론은 김용옥의 결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

운암은 주자의 이원론적 이기론의 체계는 인간 스스로의 가치창조의 가능성을 도외시킨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주자의 성리학은 존재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기의 이원적인 설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암은 주자의 존재론적 해석에 대한 논박을 통하여 실존적 인간의 가치창조에 초점을 맞춘다.³⁾

특기할만한 점은 이제마의 지시에 의해 운암의 『명선록』을 필사한 한창연, 『東醫壽世保元』의 서문을 쓴 誠堂 韓敎淵, 한설야의 아버지 韓稷淵 등은 모두 이제마의 문도들로서 함께 栗洞契를 만들어 『東醫壽世保元』을 1901년(광무 5년)에 처음 간행했다는 점이다.⁴⁾ 이 책의 1914년판 서문은 한교연이 썼는데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선생은 일찍이 聖智의 자질로써 東國의 말기에 태어나서 늘그막까지 불우하여 능히 성인의 大道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세상에 끼친 공덕은 비록 이 책에 그쳤을 뿐이었으나, 만일이 천하의 사람마다 한결같이 이 교훈을 따른다면, 또한 가히 인격을 억만년의 장래에까지 세

1) 이 글은 이제마가 고향인 함흥에서 정평으로 가던 도중 이용한 한 객사의 벽지로 발라져 있었다. 운암의 손자는 이 글이 알려지면 사문난적으로 몰린다하여 원본을 벽지로 써버렸고 동행한 이제마의 제자 韓昌淵이 필사한 것만 남아 1940년 간행되었다.(김용옥, <『동의수세보원』 강론> 참조)

2) 이을호, 「사상의학과 생명의학론」, 이을호 전서 7책, 2000, 예문서원.

3) 윤종빈, 「芸菴 韓錫地 경학의 반주자학적 성격(II)-중용」 首章 3句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1998.10, 56면.

4) 이들은 모두 이제마의 제자들이다.

<光武 5年 辛丑 6月, 咸興郡 栗洞契에서 新刊하다. 門人 金永寬, 韓稷淵, 宋賢秀, 韓昌淵, 崔謙鏞, 魏俊赫, 李燮恒>

『탑』의 마을 읍민들 회의 장면에서 이제마는 이렇게 등장한다. “그 결과 의인 이제마 선생이 나와야 되겠다고 만장의 의론이 일치하게 되었다. 당시 이제마는 나의 욕심이었는데 H 읍에서 한 이십리되는 川西라는 데 있었다. 읍회에서는 의인을 모시는 예로 대표를 뽑아 사인교로 영접하러 나갔다.”(『탑』, 288면)

워서 길이 그지없는 대강복을 누릴 것이다.

또 이들을 읽는 자는 다만 이것이 東醫의 術書라 하고 선생을 하나의 병을 다스리는 東醫라 그릇 알지 말고, 이 들 가운데에서 大康의 길을 탐구한다면, 가히 하늘나라가 저 어느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⁵⁾

이제 그 경비가 다대함을 헤아리지 않고 이미 간행에 붙인 뒤에, 내가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서 훈도의 은택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여, 나에게 교정을 보게 하고 또 그 일을 적으라 한다. ⁶⁾

이제마의 글을 의학 術書로 알지 말고 大康의 길을 탐구하는 통로로 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그 길의 문도라는 내용이다. 한설야도 경기고등학교 학적부의 가족 난에 종교를 유교라고 써 놓았던 이유도 한직연을 포함한 이제마의 문도들은 이제마를 유교적인 경학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리라.⁷⁾

울동계의 그 '契'라 하는 것이 조선말기에 유행하며 현실적인 목적에 의해 조직된 것이기는 했지만, 양반들 사이에서는 유교적 도덕규정을 마을에 베풀던 과거의 '鄉約'의 성격도 가졌던 것이다. 『東武 遺稿』⁸⁾에 실린 「濟衆新編」과 「闡幽草」는 그 사정을 잘 보여준다. 「濟衆新編」에는 '수동사 동몽계 권학문'이라는 부제가 있고 「闡幽草」는 “함흥 나촌 한창연에게 맡겨두고 문도 최겸용 등에게 너희들이 어진 사람이 되고 싶거든 이 글의 뜻을 깨우칠 때까지 읽으라고 한”⁹⁾ 글이다. 여기서 나촌이란 한설야의 고향을 말한다. 한설야의 고향은 그의 학적부에 의하면 함남 함흥군 주서면이다. 그 곳은 한씨의 집성촌으로 약 100호 정도가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¹⁰⁾ 한설야가 살고 있던 동네가 羅村이다.¹¹⁾ 이 곳의 최겸용 등이라 함은 울동계원을 말하는 것으로 한설야의 아버지도 그 일원임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이제마는 이들에게 자신의 글을 던져주며 깨우칠 때까지 읽으라는 것이었다.

이상의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한설야 집안은 이제마와의 관계망 안에 있으면서 독특한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이나 『동무유고』, 그

5) 『東醫壽世保元』, 이가원 역, 서문당, 8면.

6) 위의 책, 같은 면.

7) 이제마의 저서들을 출간한 것도 그러하거니와 『탐』에서 보이듯 “박진사는 특히 (이제마) 선생이 발명해 놓은 사상의학을 펴게 되면 그에서 더 죽한 일이 없으리라 싶”다고 쓰고 있다.(『탐』, 299면), 또 계섭이가 알아 늙자 “우길의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응답도 쓰고 굶뎡이와 마른 밤을 달여서 수시로 권하기도 하였다. 할머니는 기왕에도 부중에 걸려서 부은 일이 있는데 그때 박진사의 은사인 이제마 선생이 그런 방문을 일러주었던 것이다.”(위의 책, 461면)라 하여 늘 집안의 일상적인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8) 청계, 1999, 이창일 역주.

9) 위의 책, 34면.

10) 한국씨족사 연구회 편, 『한국족보대전』 참조.

11) 한설야, 「고난기」, 『조광』, 38년 10월 참조.

리고 『격치고』, 의 사상을 익히고 실천하려는 분위기가 그것이다.¹²⁾

한설야의 형 한병무 역시 『동의수세보원』 제6판을 1936년 12월 북경에서 출간했다거나 한설야의 큰아버지가 경성에서 한의원을 했고 이 집에서 한설야가 학교를 다녔다는 점도 참고할 사항입니다. 한병무와 한병도(한설야)라는 이름도 이제마의 호 東武의 武와 道를 넣은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4. 유교적 인간학과 독행(獨行)의 사상

이제마의 사상이 곧바로 한설야의 독특한 생리를 설명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사를 살펴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상과 생활에 대한 실천 방식이 어린 시절 한설야의 일상적 삶에 침투해 있었다고 전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하지만 이제마의 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여기서는 이제마가 강조했던 사상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그의 사상은 한교연이 정리한 『東醫壽世保元』의 개요와 김용욱이 해설한 「성정론」 부분에서 그 대강을 암시받을 수 있다.

사람이 능히 뜻을 성실케 하고 마음을 바로 잡고 中和를 보전한다면, 四象에 어떤 사람을 논할 것도 없이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곧 수복과 부귀를 누리어 그 이름이 하늘과 같이 높으므로, 그 마음을 天心이라하고 그 心神을 天君이라 한다.

이는 聖인이 極을 새운 도덕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良醫였다.

뜻을 성실케 못하고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며 그 중화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四偏에서 느끼는 百病이 사상에 근원하지 않음이 없어서 마침내는 六極의 災禍를 만든다.¹³⁾

자기의 마음을 지니는 이는 늘 마음을 책하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가 맑고 어두움은 비록 자연인 듯하나, 역시 마음을 책한 자는 맑고 책하지 못한 자는 흐리게 되는 것이다. 말의 각성이 소보다 재빠른 것은 말이 제 마음을 책함이 소보다 재빠르기 때문이요, 새매의 기세가 술개보다 사나운 것은 새매가 제 기운을 책함이 술개보다 사납기 때문이다. 마음의 본체가 맑고 흐린 것과 기운의 발동이 거세고 미약한 것이 소와 말, 술개와 새매 따위에서 그 이치를 미루어 보아 그러함을 면치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일까보냐. 혹은 배와 10배 또는 천만 배의 각성과 기세

12)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줄고, 「한설야의 『열풍』과 북경체험의 의미」, 국어국문학, 2002.9참조

13) 이가원 역, 위의 책, 7면.

를 지닌 인류로서,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나자 문득 망연히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저절로 성취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4)

김용옥은 특히 원문을 번역, 해설하면서 <성정론>의 마지막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해놓았는데 不待卜筮而可知也를 들어 '인간의 행동여하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실천적인 생각을 이제마가 지니고 있었다는 점, 니이체의 초인이론과 이제마를 비교하며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저 원숭이는 사람으로 진화했는데 너희 인간은 왜 초인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가!"(니이체) "저 매는 독수리로 자기 기를 다스려서 진화했는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이렇게 추접스러운 비박탐나의 현실에 머물러 있는가!"(이제마)¹⁵⁾로 설명한다. 이런 맥락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바로 읽힌다.¹⁶⁾

김용옥 선생의 이런 해석들은 이제마의 유교가 실학과도 다른, 독특한 진화를 이룬 유학으로 평가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주체적인 다스림이 인간의 모든 문제 - 그 끝인 육체의 병까지 추스릴 수 있다는 아주 주체적인 성격이 인상적입니다.

2) 사상의학의 원전으로 인식되는 위의 책과는 달리 『격치고』는 이제마의 사상론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저서입니다. 본 논문이 분석하려고 의도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격치(格致)란 물론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뜻합니다. 이제마에게 격물치지의 의미는 '사물의 고유한 법칙을, 즉 성명(性命)을 궁리(窮理)하여 알고 그 올바른 법칙에 따라 자신을 바로잡아 『중용』의 도와 『대학』의 덕을 자신에게서 구현함으로써 도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이제마, 『격치고』, 박대식 역, 청계, 2000, 24면).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상(四象)의 정의에 있습니다. 이제마는 태극에서 음양이 발생하고 음양에서 사상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행을 그의 존재론에서 제외하면서 우주의 존재론적 발생은 사상에서 완결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사상이란 일(事), 마음(心), 몸(身), 사물(物)을 뜻합니다. 『격치고』의 제1권 <儒略>의 제1조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몸에 깃든다. 몸은 마음에 깃든다, 마음은 일에 깃든다." 마음이 일에 깃든다고 함은 곧 거기에 마음이 있고 마음 밖에는 문도 리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주관적 관념론에서의 현상학적 환원을 보는 듯합니다. 제2조목은 "사물이란 머무는 것이다. 몸이란 활동하는 것이다. 마음이란 깨닫는 것이다. 일이란 결단하는 것이다." "세계는 이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마음과 몸의 양의적 존재로 통일되며 이 때 마음과 몸에 바탕한 지행과 성명과 도덕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으며 (--중략) 자신의 학문의 가장 일차적인 방법을 존심으로 두게된다."(박대식, 같은

14) 이가원 역, 위의 책, 25면.

15) 이 글에서 김용옥은 이을호 선생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이제마는 조선유학사의 중지부로 조선유학사는 여기서 완성되는 것인데 아무도 이제마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철학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http://taoman.hihome.com/dual_forces/dol.htm)

16) 그가 북한의 문학 건설기에 이기영의 문학(제도탐구)과는 대조되는 인간탐구 노선을 밀고 나가는 근거를 밝히는데 일조할 것이며 가부장적인 북한사회주의와 그가 특히 친연성이 있다는 점 역시 그 인식론 차원에서 밝히는 데 이러한 작업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글)고 지적됩니다.

말하자면 사상론은 “자연의 질서를 인간에게 적용한 음양오행적 인식체계가 아니라 유학을 인간 중심의 윤리에 근거를 두고서 일, 마음, 몸, 사물의 사상적 존재에 바탕을 둔 인식체계로 재 해석하였다”(위 책, 25면)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적 현실 사물의 고유한 법칙과 그 공리를 알고 그 공리에 따라 자신을 바로 잡는 일이 격물치지의 ‘격’의 개념으로 됩니다. 격이라는 행위 속에서 나와 세계, 나와 너는 긍정적 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 관계가 단절되어 나 자신만을 위한 앞이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욕망으로 봅니다. 부정태에 해당합니다.

한설야의 문학에 드러난 부정적 세대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런 욕망에 관계됩니다. 자본주의의 범주들인 공황이나 가치 생산과 시장에 대한 견해보다는 바로 인간의 빛나간 욕망만을 문제 삼습니다.

또한 이 인식체계가 인상적인 이유는 『격치고』의 제3권 <독행>편 때문입니다. <독행>을 이제마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이 편을 <독행(이 세상을 홀로 간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되 좋아하는 대상에서 좋아하는 대상의 추한 면을 알면 가운데 서서 치우침이 없다. 추해서 싫어하지만 그 추해서 싫어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측면을 가지고 같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휩쓸리지 않는다. 이와 같으면 자연히 독행하게 된다. 독행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부동심 不動心)이다.¹⁷⁾

이런 전제하에 씌어진 「독행」편은 ‘홀로 곳곳이 나아가라’는 독행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나아가 이 글은 인간의 진실 즉 인의예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그에 대립되는 인간의 거짓된 모습인 비박탐나한 인간의 모습과 생리에 대해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마가 제시한 유교적 인간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 동전의 양면인 욕망의 포로가 되는 비박탐나의 인간형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입니다.

가령

무식한(鄙) 사람이 마음은 탐욕스런 이리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경박한(薄) 사람들의 마음은 교활한 토끼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탐욕스런(貪)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돼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나약한(懦) 사람의 마음은 요사스런 여우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독행 편, 23조목)

독행과 신의가 인간됨의 도리와 관계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비박탐나의 인간형들에

17) 이제마, 위의 책, 328면.

머물러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맥의 수사학적 배치는 한설야의 여러 글들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리의 형상이 그의 작품 <그릇된 동경>과 <승냥이>이라면 토끼의 마음이란 <지하실의 수기>에서 비판한 바로 그 경박한 지자(智者)들을 가르칩니다.

때로 정히 이른 바 시속에 눈이 밝은 지자와 지레 약은 인간을 무수히 남조하는 세기에 이른 것을 나는 본다. 눈앞에 다가오는 거족의 형상에 추수영합 하도록 이른 바 이 지자들은 자기의 지혜와 이성을 동원하고 또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하는 바를 들어보면 지극히 아름답고 묘하다. 물론 어리석은 자의 머리에는 들어갈 수 없는 다채한 요술이 섞여서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나---

실로 이 영리한 인간들은 하룻밤의 철리로서 세기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 마디의 말과 성명으로서 자기의 인생행로를 역사의 그것으로부터 대담히 공화(空華)의 속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다. (<지하실의 수기>)

5. 과제들 - 사상론의 서사